

T · R · A · D · E · · · · · F · O · C · U · S

2024년 8호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2024년 2월

동향분석실 김우종 연구위원

전보희 수석연구원

조의윤 수석연구원

Trade Focus 2024년 8호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발행인 구자열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2024년 2월 19일
디자인·인쇄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CONTENTS

● 요약	01
● I.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동향	02
● II.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04
1. 수출 부진	
2. 수입 급증	
3. 경제여건 변화	
● III. 평가 및 전망	14
● IV. 향후 과제	17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향분석실 김우종 연구위원, 전보희 수석연구원, 조의윤 수석연구원

☎02-6000-5032 ✉ wj.kim@kita.or.kr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지난해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는 흑자폭이 92억 달러 감소했고 동제품(-19억 달러), 합성수지(-18억 달러)는 적자로 돌아섰다. 주요 적자 품목 중 건전지 및 축전지는 지난해 무역수지가 27억 달러 악화됐다.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품목 수는 2023년 142개로 2010년(237개)과 비교해 66.9%나 감소했다.

지난해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글로벌 ICT 경기 악화를 꼽을 수 있다. 對중국 수출 감소분 중 64%는 IT 품목 수출 부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반도체(5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 관련 품목의 수입확대도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에 기여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산 테슬라가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對중국 전기차 수입은 전년대비 255.6%나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세 배 이상 악화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도 전년대비 80.7% 늘었고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과 NCM수산화물도 각각 53.2%, 31.1% 증가했다.

對중국 수출부진이 글로벌 IT수요 위축에 의한 단기적 현상인 만큼, 올해에는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관련 품목 수출과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IT수요는 전년 대비 9.3% 증가해 글로벌 IT수요 회복 속도(6.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중국의 중속 성장 전환 및 경기선행지표 둔화,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등으로 對중국 비IT 수출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 중간재 자급률 상승, 핵심원료 의존도 확대 등으로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올해 IT경기가 반등해 IT 부문 무역수지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비IT 부문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연간 4%만 성장해도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대 수출시장이다.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테크로 제품을 차별화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부품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과 ASEAN의 분업구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ASEAN을 경유한 對중국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산업에서 한국이 비교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 R&D 투자확대,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국가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I.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동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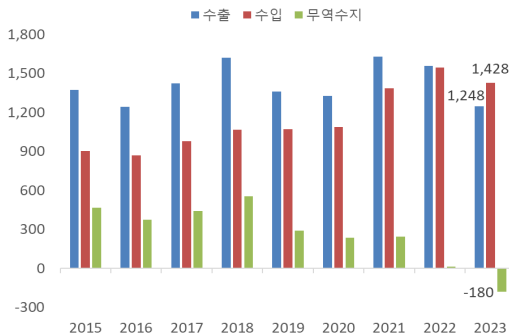
수출입 동향

» 2023년 對중국 무역수지는 180억 달러 적자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대규모 적자 반전

-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월까지 적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對중국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수출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적자폭은 개선 추세

I 對중국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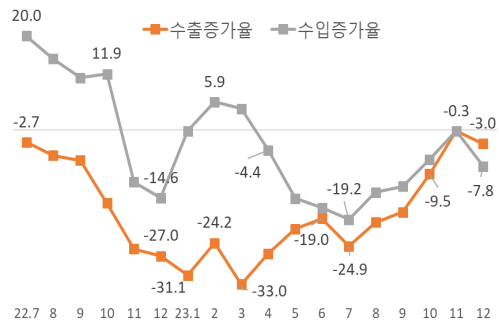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 對중국 수출입 증가율(월별)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품목) 2023년 對중국 흑·적자 주요 품목 대부분에서 무역수지 악화 현상 심화

- 對중국 무역수지를 주도하는 20개 품목(흑자10+적자10) 중 15개 품목의 수지가 감소
 - 반도체는 흑자폭 감소가 90억 달러를 넘었으며 건전지 및 축전지, 합성수지, 동제품, 화장품, 정밀화학원료 등의 무역수지도 악화
-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품목 수는 2023년 142개로 2010년(237개)과 비교해 66.9% 감소

I '23년 對중국 무역 흑자·적자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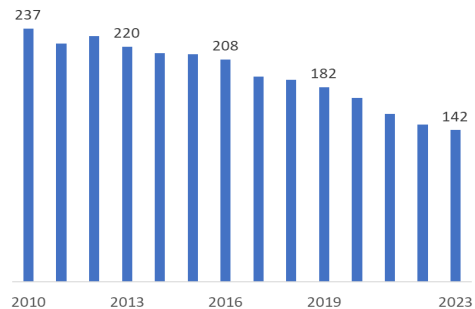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순위	최대 흑자 품목명	수지	증감	최대 적자 품목명	수지	증감
1	반도체	163	-92	정밀화학원료	-81	-4
2	합성수지	54	-18	건전지및축전지	-79	-27
3	기초유분	40	-1	컴퓨터	-45	18
4	석유화학중간원료	40	-4	산업용 전기기기	-44	-0.2
5	석유제품	34	-9	의류	-37	2
6	비누차약및화장품	27	-8	농약및의약품	-26	5
7	반도체제조용장비	27	-2	철강판	-23	-6
8	동제품	21	-19	문구 및 완구	-16	1
9	동광	21	-5	자동차부품	-15	-4
10	무선통신기기	15	-0.6	가구	-15	2

주 : MTI 3단위 기준. 증감은 '22→'23 변동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 연도별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품목수

(단위 : 개)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가공단계별) 반도체 등 교역비중이 큰 중간재 중심으로 對중국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

- 對중국 교역은 수출의 83% 이상, 수입의 67% 이상이 중간재에 집중
- 중간재·1차산품은 흑자, 소비자재·자본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중간재) 최근 중간재 수출 감소 폭이 커지면서 무역흑자가 빠르게 감소
 - * 對중국 중간재 무역흑자(억 달러) : ('21) 408 → ('22) 259 → ('23) 81
 - (소비재·자본재) 지난해 소비재와 자본재 무역적자는 각각 123억달러, 138억 달러 기록

| 對세계·對중국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교('23) (단위 : 비중%)

구 분	수출비중		수입비중	
	對세계	對중국	對세계	對중국
1차산품	0.6	1.6	22.8	1.2
소비재	15.6	5.3	13.1	13.2
자본재	14.6	9.3	12.9	17.8
중간재	68.9	83.6	50.9	67.4
기타	0.3	0.2	0.4	0.4
전품목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對중국 가공단계별 수출입 증가율 수지('23) (단위 : 전년 대비 %, 억 달러)

구 분	수출입 증가율		對中 무역수지	
	수출	수입	금액	증감
1차산품	-6.5	-18.6	3.2	2.5
소비재	-9.4	0.4	-123.0	-7.7
자본재	-26.6	-11.4	-138.1	-9.4
중간재	-19.9	-7.8	80.8	-177.8
기타	6.4	5.5	-3.3	-0.2
전품목	-19.9	-7.6	-180.4	-168.2

주 : 증감은 '22→'23 변동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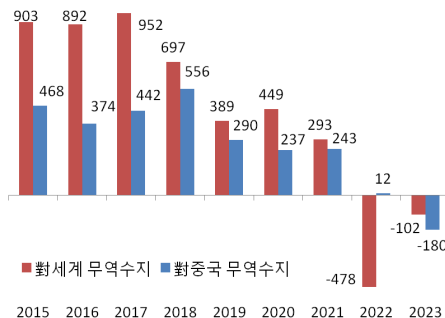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작년 우리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對세계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 중국 수입의존도도 확대

- 2023년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로 對세계 무역적자(102억 달러)의 약 1.8배에 달함
- 지난해 주요국의 수입비중은 감소했으나 對중국 수입비중은 1.1%p 상승한 22.2% 기록
 - 반면, 대중국 수출비중은 전년 대비 3.1%p 하락해 미·중 수출격차는 1.4%p로 축소

| 對세계 및 對중국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국가별 수출입 의존도(2023)

(단위 : 비중 %, %p)

순 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국가명	비중	증감	국가명	비중	증감
1	중국	19.7	-3.1	중국	22.2	1.1
2	미국	18.3	2.2	미국	11.1	-0.1
3	베트남	8.5	-0.5	일본	7.4	-0.1
4	일본	4.6	0.1	사우디	5.1	-0.6
5	홍콩	4.0	-0.1	호주	5.1	-1.0

주 : 증감은 2022년 대비 비중 변동폭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II.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1 수출 부진

① (단기 요인) ICT 경기 악화

» 코로나19 IT특수 종료 이후 중국의 ICT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

- 2023년 1~11월 중국의 對세계 ICT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고 이는 전 품목 수입 감소폭(-6.1%)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 ICT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중국, 1~11월) -15.1 (미국, 1~11월) -12.1 (EU, 1~9월) -5.8

* 전 품목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중국, 1~11월) -6.1 (미국, 1~11월) -5.2 (EU, 1~9월) -7.1

» 지난해 우리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품목의 對중국 수출감소액은 전체 수출감소액의 64%를 차지

-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감소액(160억 달러)은 전품목 수출감소액(31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對중국 수출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 對중국 반도체 수출비중도 2022년 33.4%에서 2023년 29.0%로 1년 만에 4.4%p 감소

* 對중국 수출 중 반도체 비중(%) : ('12) 13.3 ('15) 20.3 ('17) 27.7 ('22) 33.4 ('23) 29.0

- 2023년 對중국 반도체 무역수지는 163억 달러 흑자를 유지했으나 2022년(255억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대폭 감소해 전체 무역수지 악화에 크게 영향

I 對중국 IT 수출감소 영향률

(단위 : 영향률%)

품목	수출감소 영향률
반도체	51.5
컴퓨터	3.6
디스플레이	7.1
무선통신기기	1.7
가전	0.2
5대 품목 합계	64.0

주 : 수출감소 영향률 = 품목별 증감 / 총수출 증감 x 100
자료 : 한국은행

I 對중국 6대 수출품목 무역수지

(단위 : 억불, 전년동기비%)

품목	'22년(a)	'23년(b)	증감액(b-a)
반도체	255	163	-92
합성수지	72	54	-18
무선통신기기	18	12	-6
정밀화학원료	-77	-81	-4
평판디스플레이	40	21	-19
석유화학중간원료	44	40	-4
對중국 총계	12	-180	-192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② (구조적 요인) 우리 수출경쟁력 약화(점유율 하락)

» 중국의 對한국 수입 상위 20대 품목 중 13개에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 반도체장비, 석유제품, 컴퓨터 등 3개 품목은 중국의 對세계 수입이 증가한 반면, 우리의 對중국 수출과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
-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합성수지, 반도체 등 10개 품목은 중국의 對세계 수입 감소와 동시에 한국의 점유율도 하락해 우리 경쟁력 약화가 우려
- 석유화학중간원료, 자동차부품 등 7개 품목은 우리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중국의 수입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반면, 우리 주요 수출품목 중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품목은 전무
 -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에서 ASEAN, 일본, 미국, 대만의 점유율이 상승해 이들 국가가 중국 내수기업과 함께 우리의 경쟁국으로 나타남

* 점유율 상승국가 : 석유제품(말련), 반도체장비(네덜란드, 싱가포르), 컴퓨터(베트남, 대만), 반도체(일본, 대만), 합성수지(미국, 일본), 기초유분(미국, 말련), 디스플레이(대만, 독일), 화장품(프랑스, 이태리), 기구부품(독일, 태국), 철강(인나), 광학기기(태국, 일본), 계측제어기(미국, 독일), 동제품(공고, 러시아)

| 중국의 對한국 수입 상위 20대 품목의 중국내 점유율 변화(2023.1~11월 기준)

(%p, %)

	한국 점유율 상승		한국 점유율 하락	
	중국의 對세계 수입 증가 품목	중국의 對세계 수입 감소 품목	중국의 對세계 수입 증가 품목	중국의 對세계 수입 감소 품목
중국의 對세계 수입 증가 품목			반도체장비	<-3.2> (-23.9)
			석유제품	<-2.9> (-11.2)
			컴퓨터	<-3.8> (-49.3)
	석유화학중간원료 ¹⁾	<2.8> (-14.8)	기구부품 ²⁾	<-0.2> (-24.7)
	유리제품	<2.1> (-10.3)	화장품	<-0.5> (-22.3)
	정밀화학원료	<0.9> (-2.7)	철강판	<-0.5> (-31.5)
	무선통신기기	<0.8> (-4.2)	계측제어기	<-0.7> (-21.3)
	기계요소	<0.7> (3.4)	동제품	<-0.7> (-20.9)
	자동차부품	<0.3> (-11.2)	반도체	<-1.5> (-24.1)
	플라스틱	<0.2> (-11.2)	합성수지	<-1.5> (-27.1)
중국의 對세계 수입 감소 품목			광학기기	<-2.4> (-33.5)
			기초유분 ³⁾	<-3.4> (-9.7)
			디스플레이	<-4.9> (-34.6)

주 : 1. 파라크실렌, 스티렌, 초산비닐 등

2. 스위치, 인쇄회로, 퓨즈 등

3.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등

4. < >는 중국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변화(전년동기대비 %p), ()는 중국의 對한국 수입증감률(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계산

» 중국의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불변시장점유율(CMS)¹⁾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對중국 수출 감소분의 32%가 경쟁력 하락에 기인

-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377억 달러 감소해 대만 다음으로 컸으며 이 중 31.9%인 120억 달러가 경쟁력(점유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對미국 수입은 반도체, 반도체장비 등 미국이 對中수출을 억제하는 품목과 가격·수요 변동이 큰 농축산물에서 점유율이 하락해, 제조분야 경쟁력 약화는 한국이 제일 큰 것으로 판단
 - * 중국의 수입 감소국의 경쟁력 요인 비중(%) : 미국(55.0), 한국(31.9), 일본(21.7), 대만(7.1)
- 그 밖에 우리의 對중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 중국의 수입 비중이 하락한 품목에 대한 수출(상품구성요인)이 37.9%, 중국의 전반적 수입수요 감소(수요요인)가 30.1%를 차지
- 반면, 대만은 對중국 수출 감소의 57%가 상품구성 요인이었고 경쟁력 요인은 7%에 불과

| 중국의 국별 수입 증감액 분해

(억달러, 비중 %)

국 가	수입액	수입증감액 (a+b+c)	수입 증감액 분해					
			경쟁력요인(a)		상품구성요인(b)		수요요인(c)	
대 만	1,829	-381	-27	(7.1)	-219	(57.5)	-135	(35.5)
미 국	1,511	-106	-58	(55.0)	51	(-48.4)	-99	(93.4)
한 국	1,481	-377	-120	(31.9)	-143	(37.9)	-114	(30.1)
일 본	1,458	-243	-53	(21.7)	-86	(35.4)	-104	(42.9)
독 일	978	-45	33	(-73.3)	-16	(34.7)	-63	(138.6)
말레이시아	935	-62	24	(-38.5)	-25	(40.6)	-61	(97.9)

주 : 수입액은 2023.1~11. 기준, 수입증감액(a+b+c)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계산

» 중국 시장에서 여타국 대비 한국의 경쟁력 약화는 가격경쟁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신성장 동력 부재에 따른 산업기반 저하에 주로 기인

-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석유제품, 기초유분, 컴퓨터, 철강 등은 ASEAN에, 기술력이 중요한 광학기기, 계측제어기, 반도체는 일본, 독일, 대만에,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화장품은 프랑스에 밀리고 있음
- ‘가격 대비 높은 품질·기술력’이라는 한국의 강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데다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경합이 늘어나고 있어 수출경쟁력 약화는 여타 시장에서도 재현될 소지가 큼

* 연평균 실질임금 증감률('16~'22, %) : 한국(1.6), 홍콩(0.5), 대만(1.1), 독일(0.5), 일본(-0.3) <자료 : ILO>

* 시간당노동생산성 ('22년, 2010년 US\$ PPP) : 한국(43.1), 일본(48.1), 독일(68.5) 미국(73.9) <자료 : OECD>

1)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분석

① 경쟁력요인 :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각국의 품목별 점유율 변동을 경쟁력 요인으로 계산
 ② 상품구성요인 : 중국의 수입비중 상승/하락 품목에서 각국의 점유율을 기초로 계산
 ③ 수요요인 : 중국의 전체 수입규모 증감에 따른 각국의 수입액 변화를 기초로 계산

2

수입 급증

① 핵심소재 수입 확대

» 수산화리튬, NCM 수산화물 등 2차전지 핵심소재 수입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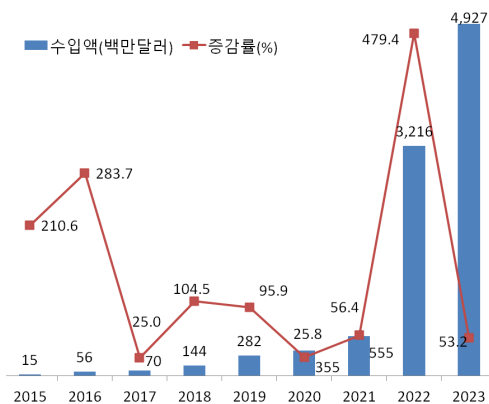
-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2차전지 핵심소재의 수입이 증가, 對중국 무역적자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지난해 對중국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전년 대비 53.2% 증가한 49.3억 달러로, 총 48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2022년 87.8%에서 2023년 79.6%로 소폭 줄었으나 수입 대상국 중 여전히 절대 비중을 차지

* 2023년 수산화리튬 국가별 수입 비중(%) : (중국) 79.6 (칠레) 17.5 (미국) 1.2 (일본) 1.0 (러시아) 0.7

-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²⁾ 수입도 전년 대비 31.1% 증가한 28.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
 - 對중국 수입의존도는 96.9%로 2022년(92.6%)보다 4.3%p 상승

| 對중국 수산화리튬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주 : HSK 282520200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한국의 NCM 수산화물 수입의존도

(단위 : 백만 달러, %, %p)

수입 국가	2022년		2023년		증감 (B-A)
	금액	의존도 (A)	금액	의존도 (B)	
중국	2,143	92.6	2,809	96.9	4.3
일본	103	4.5	66	2.3	-2.2
핀란드	68	2.9	25	0.9	-2.1

주 : HSK 2825902050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 리튬 이차전지의 양극 활물질 제조용 원료

②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 급증

▶ 對중국 배터리 수입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부터 무역수지 적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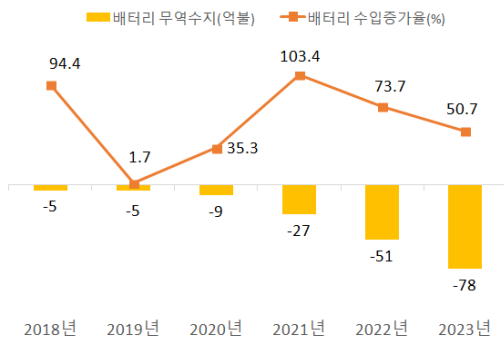
-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배터리는 81억 달러로 전년대비 50.7% 증가
 - 對중국 배터리 수출은 3억 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해,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무역수지 적자에 그대로 반영

▶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지난해 대중국 수입이 급증해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기차용 배터리는 63억 달러로 전년대비 80.7% 증가
 - 2022년 34억 달러 적자에서 2023년 62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약 2배 확대
-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6.7%에 달할 정도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
 - * 전기차용 배터리 국가별 수입 비중(2023년, %) : 중국 96.7, 미국 1.5, 폴란드 1.1, 일본 0.4
- 對중국 전기차 배터리 수입 기업 수도 빠르게 증가
 - * 전기차용 배터리 對중국 수입 기업수 (2022년) 43개 → (2023년) 63개 (46.5% ↑)

| 對중국 배터리 수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



주 : HSK 850760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개)

구 분			'22(a)	'23(b)	(b-a)
금액	수입	금액 (증가율)	35 (-)	63 (80.7)	28
	무역수지	금액	-34	-62	-28
기업 수	전체 수입기업		43	63	20

주 : HSK 8507602000('22년 신규 개정 코드)

※ 기존 '리튬폴리머축전지(8507601000)'에서 '전기차용'과 '에너지장장치용(ESS)'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신설

자료: 한국무역협회

③ 전기차 수입 급증

▶ 對중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규모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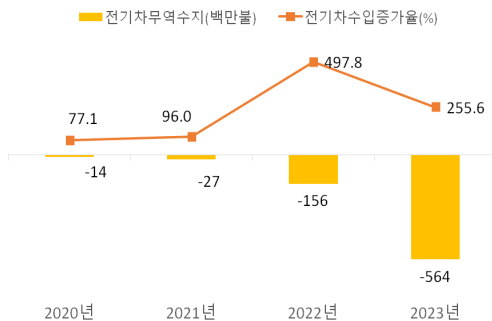
-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는 1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6.8% 증가
 - 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은 전기차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자동차 무역수지는 매년 악화
-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입 대상 국가(수입비중 40.6%)로 수입 규모가 매년 10% 이상 성장
 - 자동차부품 무역수지는 2020년 적자 전환 후 지난해 최대 적자규모(14억 달러) 기록

* 무역통계 분류상 자동차부품(MTI 742)에는 전기차 배터리 및 미려차 부품 등이 미포함

▶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수입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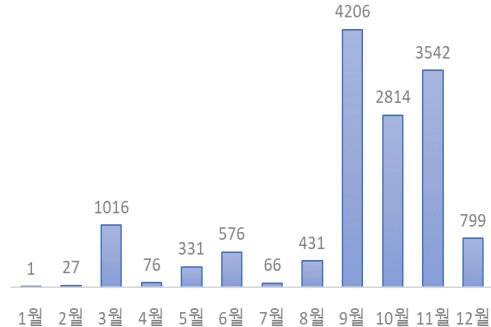
- 2023년 對중국 전기차 수입액은 5.9억 달러로 전년대비 255.6% 증가
-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국내 수입 및 판매 확대 영향
 -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하이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Y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량 유입
- 아직 전기차의 수입비중은 크지 않으나 폭발적 증가세로 무역적자 폭이 점차 확대
 - 2023년 대중국 전기차 무역적자 규모는 2022년 1.6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상승(5.6억 달러)

| 對중국 전기차 수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2023년 월별 테슬라 모델Y 신규등록 현황 (단위: 대)



자료: 카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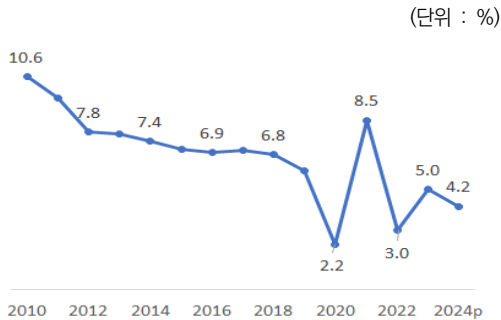
3 중국 경제여건 변화

① 중국 경기둔화 및 내수부진

» 마·중 갈등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중속 성장세 지속

- 소비와 산업생산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는 부진한 흐름
 - 중국의 제조업 PMI는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2분기부터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부진 지속
- IMF는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3.10월p)를 하향 조정해 미국과 대조
 - * IMF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23.10p → '23.10p, %) : (중국) 4.5 → 4.2, (미국) 1.0 → 1.5

|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주 : 2024년 수치는 IMF WEO 10월 전망치
자료 : IMF

| 중국의 생산·소비 지표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항 목	2021	2022	2023			
			1Q	2Q	3Q	4Q
고정투자	4.9	5.1	5.1	3.8	3.1	3.0
산업생산	9.6	3.6	3.0	4.5	4.2	6.0
소매판매	12.5	-0.2	5.8	11.4	4.2	8.4
제조업PMI	50.5	49.1	51.5	49.0	49.7	49.3

자료 : 국제금융센터

» 한국의 對중국 수출 품목 중 중국 내수용 비중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봉쇄해제 이후 중국의 내수 둔화로 對한국 수입 여력이 약화

* 한국의 對중국 수출품 중 내수용 비중(% , 무역협회)³⁾ : ('07) 63.4 → ('21) 76.1

- 중국 내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 위안/달러 환율 절하도 수입품의 상대가격을 높여 수입 수요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연도	부동산투자(%)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위안/달러 환율	수입단가(%)
2020년	7.0	2.5	-0.3	6.90	-4.7
2021년	4.4	0.9	8.1	6.44	12.4
2022년	-10.0	2.0	4.2	6.76	12.0
'23.1~11월	-16.0	0.2	-3.1	7.10	-3.2

주 : 위안화 기준
자료: CEIC

3) 세계산업연관표(WIOT)의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해 중간재의 가공단계를 추적 후 최종수요처를 기준으로 분해.
2021년 對중국 수출을 귀착지별로 분해하면, 중국 내수용 비중이 76.1%(최종재 20.2%, 내수용 중간재 55.8%)를 차지.

②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 중국의 對세계 수입은 감소세 지속

- 지난해 중국의 對세계 수입은 5.6% 감소해 2015년(-18.4%) 이후 최대 하락폭
 - 3대 에너지를 제외하면 2022년(-4.1%)에 이어 감소세 지속
- 특히 대만(-17.2%), 한국(-20.3%), 일본(-14.3%) 등 제조업 중심 국가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 2023년 중국의 국가별 수입증가율(%) : (대만) -16.6 (미국) -6.5 (한국) -18.8 (일본) -13.0

| 중국의 對세계 수입 증가율

(단위 : %)

품 목	2020	2021	2022	2023
전품목	-0.4	30.0	1.4	-5.6
(3대 에너지 제외)	(3.8)	(27.2)	(-4.1)	(-5.9)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 수입이 가장 많은 중간재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하회하며 수입 감소를 주도

- 미국의 주요 對중국 견제 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해도 중간재 수입 비중은 감소세

* 반도체 제외 중간재 수입 비중(%) : 41.9('20) → 41.5('21) → 41.5('22) → 39.9('23.1~11)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 %)

	수 출					수 입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
2020년	0.6	44.0	28.3	26.3	0.8	23.1	53.2	12.4	10.9	0.4
2021년	0.6	46.7	27.1	24.5	1.0	26.2	52.3	11.2	9.9	0.4
2022년	0.7	49.6	20.7	27.9	1.1	29.3	51.8	9.0	9.7	0.2
23.1~11	0.6	48.2	20.5	28.9	1.8	31.3	49.1	9.5	9.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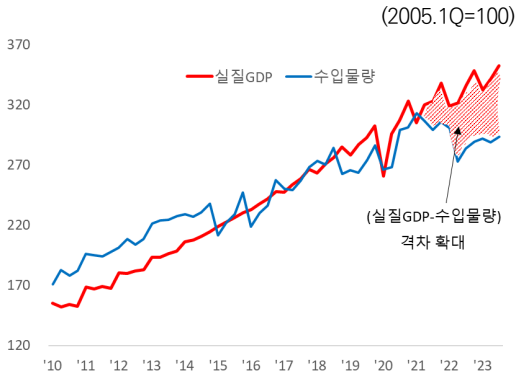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③ 중국의 자금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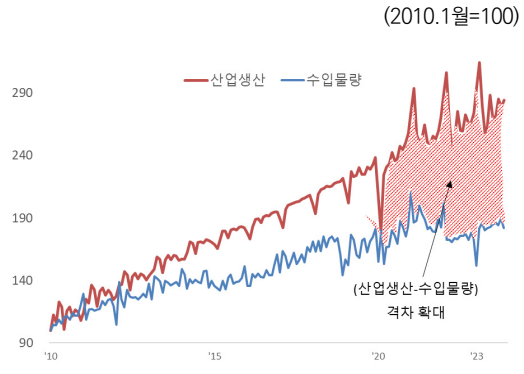
▶ **쌍순환전략(2020년) 추진 이후 소비투자 확대, 자체 공급망 구축으로 수입수요 둔화**

- 중국의 수입물량을 실질 GDP, 산업생산과 비교해보면 2021년부터 격차가 확대

| 중국의 실질GDP와 수입물량



| 중국의 산업생산과 수입물량



주 : CEIC의 실질GDP(분기), 산업생산(월별), 수입물량(분기, 월)자료를 기초로 계절조정

▶ **특히 한국의 對中 수출이 크게 감소한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 자동차에서 중국의 수출자립도가 크게 상승했고 플라스틱, 전기전자도 꾸준히 상승**

| 중국의 산업별 수출 자립도

품목	2020년(a)	2021년	2022년	23.1~11(b)	b-a
화학공업제품 ¹⁾	-0.013	0.175	0.292	0.213	0.227
플라스틱·고무·가죽	0.701	0.708	0.767	0.789	0.088
섬유류	0.952	0.946	0.959	0.957	0.006
생활용품	0.982	0.984	0.988	0.989	0.007
철강금속	0.243	0.421	0.467	0.474	0.231
자동차	0.605	0.700	0.797	0.861	0.256
전기전자	0.498	0.506	0.527	0.571	0.073

주 : 1)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화장품, 의약품, 비료 등

2) 수출 자립도는 1-(중간재수입/총수출)로 계산, 1에 근접할수록 완전 수출 자립을 의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 이에 따라 한국의 對中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의 무역적자가 축소되거나 흑자가 확대

| 중국의 품목별 무역수지

	2020	2021	2022	2023.1~11
석유화학	-783	-756	-498	-378
정밀화학	-20	270	334	35
철강제품	374	801	1,063	922
자동차	-277	-152	105	500
반도체	-2,124	-2,508	-2,542	-1,826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단위 : 억 달러)

④ 중국의 FDI 감소

▶ 중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외투 기업에 납품하던 대중 수출도 감소

- 2022년부터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023년 1~3분기 중 중국 내 외투기업의 자금유출이 1,000억달러를 상회⁴⁾
- 중국내 한국기업의 철수도 확대되며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對한국 매입 비중도 2022년 크게 하락

* 중국내 한국기업의 對한국 매입비중(%), 수출입은행 : ('18) 33.8 ('19) 34.6 ('20) 31.9 ('21) 31.3 ('22) 27.0

Ⅰ 한국의 對중국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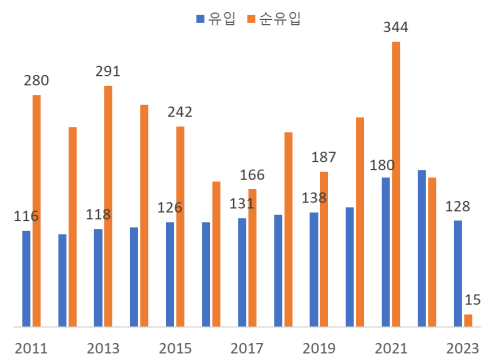
(개사, 백만달러)

구분	투자액 (a)	회수액 (b)	순투자 (a-b)
'20 전체	5,117	638	4,480
(제조업)	(4,607)	(563)	(4,044)
'21 전체	6,731	2,715	4,016
(제조업)	(5,921)	(2,580)	(3,341)
'22 전체	8,538	1,394	7,144
(제조업)	(8,047)	(1,179)	(6,869)
'23.1~9 전체	1,458	796	662
(제조업)	(1,180)	(621)	(560)

자료 : 수출입은행

Ⅱ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美 PIIE ('23.11월)

Ⅲ 참고 : 중국 對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 원인

① (생산기지 매력도 하락) 중국내 인건비 증가로 중국생산에 따른 이점 상실

* 주요국 실질임금 상승률(ILOSTAT, '06~'22 연평균 %) : (중국) 7.6 (한국) 1.1 (베트남) 4.7 (미국) 0.6

②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 미국은 2018~2019년 4차례에 걸쳐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제품에 7.5~2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 관세부과 품목은 총 14,958개(HS10단위)로 대중 수입품목의 86%에 달하며 이 품목이 對中 수입 감소를 주도하면서 중국내 투자 감소

③ (중국 로컬기업 부상) 중국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이 더이상 로컬 기업에 비해 독점적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함

-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상회

* 글로벌 500대 기업 수(개사, '05 → '20 → '23) : (미) 176 → 121 → 136 (중) 16 → 124 → 135

4)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iting China, new data show (PIIE, 2023.11월)

III. 평가 및 전망

» 지난해 對중국 수출부진이 글로벌 IT수요 위축에 의한 단기적 현상인 만큼, 올해에는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관련 품목 수출이 크게 개선될 전망

- 팬데믹 과잉생산 여파로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PC, SSD 등 주요 IT제품 수요는 급감했으나, 올해는 신규 및 교체수요 확대
 - 2024년 중 스마트폰(6.9%), 가전(5.4%), PC(2.8%) 등 전방 IT기기의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면서 SSD(77.4%), 반도체(18.2%) 매출도 큰 폭으로 확대 예상(Gartner)
 - 반도체의 경우,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비메모리(7.0%)와 달리 AI산업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반도체(73.2%) 매출은 큰 폭으로 확대 전망

I 글로벌 주요 IT기기 매출액 전망 (생산기준)

(단위 : 억 달러, 전년대비 %)

구분	2022		2023 ^e		2024 ^p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반도체	5,996	(0.2)	5,345	(-11.1)	6,244	(18.2)
메모리	1,432	(-13.7)	902	(-37.0)	1,563	(73.2)
비메모리	4,564	(5.5)	4,428	(-3.0)	4,737	(7.0)
스마트폰	2,851	(-0.8)	2,717	(-4.7)	2,905	(6.9)
PC	1,151	(-19.8)	947	(-17.7)	974	(2.8)
SSD	388	(-4.9)	226	(-41.9)	400	(77.4)
가전	3,420	(2.1)	3,552	(3.9)	3,743	(5.4)

자료 : Gartner

- 올해 중국의 IT 수요는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IT 수요 증가율 전망치인 6.8%를 상회
 -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IT 수출 증가율은 對세계 IT 수출 증가율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
- * 2024년 한국의 對세계 수출 전망(무역협회, %) : (전품목) 7.5 (컴퓨터) 45.6 (반도체) 21.9 (무선통신기기) 7.1 (디스플레이) 3.7

I 세계·중국 IT 수요 전망 (소비기준)

(단위 : 10억 달러, 전년대비 %)

구분	2022	2023 ^e	2024 ^p	2025 ^p	2026 ^p	2027 ^p
전세계	4,531	4,679	4,998	5,505	5,981	6,472
(증가율)	(3.0)	(3.3)	(6.8)	(10.2)	(8.7)	(8.2)
중국	569	562	615	694	757	823
(증가율)	(2.0)	(-1.2)	(9.3)	(12.9)	(9.2)	(8.6)

자료 : Gartner

▶ 반면 중국의 중속 성장 전환 및 경기선행지표 둔화,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등으로 對중국 BIT 수출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금년 경제성장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 중반에 그치는 가운데, 한국의 對중국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소매판매, 산업생산, 수출·수입은 회복세가 크지 않을 전망
 - 2023년 말 발행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가 인프라에 투입되며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나 첨단산업·그린전환에 집중돼 우리의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 특히 금년 수출입(금액) 성장률 전망치가 2%대에 그쳐 우리의 對중국 수출여건은 여전히 불확실
- 디플레 우려도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인 제조 PMI, 신규주문·수출주문·원자재재고 PMI도 기준선(50) 이하에서 횡보해 올해 뚜렷한 수입수요 개선은 어려울 전망

* 중국 PMI ('24.1월) : (비제조) 50.7 (제조) 49.2 (신규주문) 19.0 (수출주문) 47.2 (원자재 재고) 47.6

▶ 對중국 수입은 전기차 수요 둔화, 배터리 해외생산 확대로 전기차·이차전지에서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여타 품목은 보험세 전망

-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산화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가격이 2023년에 하락했고 금년에도 하향 안정화가 예상돼 수입증가율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2023년 배터리 소재 수입물가 증가율(한국은행, %) : (수산화리튬) -35.5 (탄소·흑연) -12.2

- 반면 생산인력 부족, 산업기반 약화로 국내 제조산업 공급에서 수입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올해 전기차·배터리 이외 분야 對중국 수입은 강보험세를 보일 전망

*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 중 수입제품 점유비(통계청, %) : 22.1('16) → 23.7('18) → 26.7('21) → 27.3('23.3Q)

| 2024~2025년 중국경제 전망

		(전년비 %)		
항목		2023	2024 ^p	2025 ^p
GDP ·생산 ·판매	실질GDP	5.2	4.6	4.5
	고정자산 투자	3.5	4.5	4.3
	산업생산	4.4	4.5	4.2
	소매 판매	7.6	6.0	5.5
물가	소비자물가	0.2	1.1	1.7
	생산자물가	-3.0	0.2	1.5
무역	수출(금액)	-4.6	2.0	3.1
	수입(금액)	-5.3	2.7	2.4

자료 : Bloomberg (Bloomberg가 취합한 각 전망기관 평균치)

| 2024년 중국산 배터리 소재 가격 동향

(천달러/톤)					
	2022	2023			
		1Q	2Q	3Q	4Q
수산화리튬	70.5	64.7	38.6	30.9	17.5
니켈	6.6	6.7	5.7	5.0	4.8
코발트	12.1	6.2	5.3	5.5	4.8

자료 : BNEF(2024.1월)

»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 핵심원료 의존도 확대, 對중국 소비재 수출 감소 등으로 한국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2022년 대비 2023년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액 192억 달러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등 IT 품목이 98억 달러, 전기동력화 품목이 35억 달러, 기타 비IT 품목이 59억 달러를 차지(MTI 3단위 기준)

- 비교 연도를 확장해 보면 무역수지 감소세는 IT 품목보다 전기동력화 품목과 기타 전통적인 비IT 부문에서 두드러짐

* 對중국 전기동력화 품목 무역수지 변화(억불) : ('20) -40 ('21) -78 ('22)-129 ('23) -164

* 對중국 비IT 품목 무역수지 변화(억불) : ('20) 123 ('21) 84 ('22)-67 ('23) -126

- 올해 IT경기가 반등해 IT 부문 무역수지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비IT 부문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

| 對중국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품목	237	243	12	-180
IT	153	237	208	110
전기동력화 품목	-40	-78	-129	-164
양극재	-30	-51	-76	-80
리튬이온배터리	-9	-27	-51	-78
전기차	0	0	-2	-6
기타 비IT	123	84	-67	-126
철강	-21	-57	-56	-65
광학기기	36	20	16	8
화장품	37	48	35	27
석유제품	64	67	43	33

주 : 양극재 MTI 2289, 리튬이온배터리 MTI 835220, 전기차 MTI 7414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IV. 향후 과제

»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오늘날 '거대시장 보유국'으로 탈바꿈한 중국을 바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수요 트렌드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에 맞는 대중 수출구조 전환 전략 필요

○ 중국의 자급률 향상으로 중간재 수입수요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 2023년 중국의 對세계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은 49.1%로 2020년(53.2%) 대비 4.1%p 하락

-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도 전년 대비 19.9% 감소한 1,043억 달러를 기록

* 국가별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비중 변화('20→'23, %) : (중국) 29.3→23.9, (미국) 11.4→13.3 (인도) 2.7→3.5

○ 올해 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거대시장으로서 우리에게 수출 기회 존재

- 중국의 2023년 총 GDP(명목)는 약 17.7조 달러(IMF, 추정)로 올해도 4% 성장을 가정할 경우 7,08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가치 창출(동기간 한국 GDP 1.7조 달러의 41.4%에 해당)

- 과거 저가 제품 위주에서 고가 제품,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테크로 차별화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중국 소비자의 소비성향 공략

○ 중국의 수입수요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 지난해 중국의 對세계 수입 감소(-5.6%)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기호식품, 전력기기, 의약품, 진단시약, 의료기기 등의 수입수요는 증가

* 국가차원의 의료인프라 개선 투자 확대로 초음파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입 확대

* 2022년 중국 의료기기 시장규모 : 1조 3천억 위안(약 240조 9,420억원, 글로벌 2위)⁵⁾

| 2023.1~11 중국의 對세계 수입증가 품목

(단위 : 억 달러, %)

품목	반도체 제조장비	안정기	인버터	항공기 부품	보석	비알콜 음료	담배	라면	의약품	진단 시약	백신	의료기기 초음파
수입액	376	6.3	4.1	47	48	6.9	21	2.7	226	51	59	65
증가율	(14.1)	(26.2)	(46.3)	(47.7)	(27.7)	(19.2)	(50.3)	(15.9)	(9.2)	(6.6)	(58.2)	(3.3)
												(11.7)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5) 中国政府网(23.7.11.) '国家药监局:我国成为全球第二大医疗器械市场'

» 핵심소재에 대한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시급

- 반도체, 배터리 제조용 핵심소재의 對중국 수입 편중은 무역적자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수산화리튬은 2022년 對중국 수입의존도가 87.8%에 달했으나 칠레로의 수입선 다변화가 성과를 거두면서 2023년에는 79.6%까지 하락

* 수산화리튬 수입의존도('22→'23, %) : (칠레) 10.7→17.5 (중국) 87.8→79.6

- NCM 수산화물과 같이 對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핵심소재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기업 생산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 절실

» ASEAN을 경유한 對중국 수출 확대 전략 수립

- RCEP 발효를 계기로 중국의 수출입이 ASEAN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저부가 위주 제조업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ASEAN으로 이전
 - 2023년부터 ASEAN이 중국의 1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고 수입에서도 ASEAN과 여타 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늘고 있음

* 중국 수입 중 ASEAN 비중(%) : 13.6('19) 14.6('20) 14.7('21) 15.0('22) 15.1('23.1~11)

- 중국내 한국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에서 선진국, ASEAN, 자원보유국이 한국을 대체
 -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에서 인도네시아(철강), 대만(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싱가포르(반도체장비), 말레이시아(석유제품, 기초유분), 베트남(컴퓨터), 태국(광학기기) 등의 점유율이 상승
- 향후 對ASEAN 투자 확대 등을 통해 ASEAN을 경유한 對중국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미래산업에서 한국이 비교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가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친화적 국내 여건 마련

-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산업정책 및 공급망 점검 시급
 - 미국의 ICT 기술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한국 89.6, 중국 91.8로, 한국은 이미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수준보고서, 2021)
- 국내 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 R&D 투자확대,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친화적 경영여건 마련 등 전방위적 국가 전략 수립 필요

참고문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1), 「2021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통계청(2023),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John Liu (2024), 「China Weighs Stock Market Rescue Package Backed by \$278 Billion」, Bloomberg

Nicholas R. Lardy (2023),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iting China, new data show」, PII

陈海波 (2023), 「国家药监局：我国成为全球第二大医疗器械市场」, 光明日报, 中国政府网.